

재림의 징조 3: 제3 성전 건립과 성전 터

(*) 디도서 말씀

재림의 여러 징조: 유대인 귀환, 성전 건축

1948년 5월 14일, 1967년 6월 5일부터 육일 전쟁, 구 예루살렘 탈환

(*) 2017년 5월 22일, 트럼프 예루살렘 방문, 통곡의 벽

2017년 12월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 2018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바로 그날 폭동과 테러, 60여 명 사망

(*) 6월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이스라엘, 사우디, 이집트 방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과 '평화 노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쟁과 폭동 테러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것이다.

어떤 신에게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 (*)이슬람교도들, 성전 산(Temple mount)으로 알려진 곳에 바위 사원, 알아크사 모스크, 알라 숭배

621년에 무함마드는 밤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몇 시간 동안 메카의 모스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거기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옴, 예루살렘의 그 장소가 바로 알아크사 모스크

꾸란17:1, '이스라엘과 미라즈'

그 뒤 636-637년에 이슬람은 예루살렘 정복

알아크사 모스크: 이슬람의 3대 성지, 638년 조그만 기도처, 그 뒤 705년경 건축, 여러 차례 소실, 1033년경 다시 지음

바위 사원(Dome of the Rock), 691년경 건축, 1022년 재건

(*) 이스라엘 사람들, AD 70년 성전을 잃고 약 2000년 유랑,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그러려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어디에? 유대인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곳

전통적으로 이곳은 바위 사원이 있는 곳, 지으려면 없애야 한다. 이러면 3차 세계대전?

이슬람 바위 사원, 여기가 정말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인가? 성경과 역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성전 역사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 탈출, 성막을 허락하심, 이동 가능한 텐트

(*) 그 뒤 500년쯤 지나서 다윗 시대, 성전 짓기를 구함

1. 솔로몬 시대에 지음(BC 1004), 제1 성전

그 뒤 유다의 패망,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BC586년),

2. 스룹바벨 귀환, 성전 완공 BC 516년, 초라함, 제2 성전

BC 19년경 헤롯 성전 보수 시작, 46년에 걸쳐 헤롯 성전 지음, 제2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심
BC 70년, 제2 성전 로마에 의해 훼파됨

제2성전은 AD 70년 완전히 파괴됨

(*) 성전 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지 순례 필수 지역(이슬람, 기독교_천주교, 개신교-정교회 유대교)

(*) 통곡의 벽: 서서 울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평을 기도한다.

(*) 3. 이제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함,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감

4.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

성전 터의 위치

(*) 이미 주후 4세기경 성전 터는 4-5군데, 정확하지 않다. 초토화된 뒤 거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연구, 4-5군데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지금의 바위 사원이 있는 곳은 성전 터가 아니다.

마틴 박사(Dr. Ernest L. Martin), 최근의 로버트 코르누크(Robert Cornuke) 등, 코르누크는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작업, 유튜브 Cornuke Temple(The Temple, 30분 비디오)

성경의 증언

(*) 예수님의 예언(마24:1-2)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된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생활 터전이다. 12지파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 줌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을 예언하셨다.

(*) 눅19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예언(눅19:41-44): 역시 완전한 초토화

(*) 그런데 지금의 통곡의 벽은 어떻게 남아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것은 성전의 유물이라고 믿고 가르친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과연 그럴까?
현재 통곡의 벽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예언과 상충되지 않는가?

성전의 위치

(*) (*) 먼저 예루살렘 지도 설명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짓기를 갈망한 사람은 다윗이었다(삼하7:1-2).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감사가 컸으므로 하나님이 일부를 허락함

지어라. 그러나 네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에 기뻐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물자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또 성전 터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 시온 성, 다윗의 도시 탈취(삼하5:1-3, 6-10), 원래는 이름이 여부스

3000년 전에 다윗은 시온의 강한 요새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도시였다.

다윗의 도시, 12에이커, 15,000평, 2,000명 거주

후에 그는 백성의 수를 세고 나서 역병의 형벌을 받았다(7만 명 사망).

(*)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성전 터를 돈을 주고 구매하게 된다(대상21:15-28).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하였
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성전 터가 되었다(대상22:1-10).

(*) 실제 지도를 보면 다윗의 도시는 지금의 바위 사원 남쪽에 있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 후 다윗은 대제사장에게 솔로몬을 성막으로 데려가 거기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왕상1:30-35, 38-39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던 성막은 다윗의 도시 안에 있는 기혼 샘 옆에 있었다.

(*) 드디어 성전 건축(대하3:1), 다윗이 지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신 곳은 시온 혹은 다윗의 도시 시온이다.

시9:11

시50:2

시74:2-3

시온은 성경에 약 300회 언급됨,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함

다윗의 40년 통치 중 예루살렘 33년, 성막이 있던 곳, 그 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많은 이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분하지 못함

실제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르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구역

(*) 시51:18

시102:21, 사24:23

돌을 같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정확하다.

성전 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서: 기혼 샘

성전의 특징 중 하나: 벽에서 생수가 흐른다.

(*) (*) (*) 현재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기혼 샘

(*) 이것은 오벨(Ophel) 언덕 기슭에 있다. 오벨 언덕은 시온 산(다윗의 도시) 북쪽 벽의 정북 쪽에 놓여 있다.

오벨 언덕과 다윗의 도시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다윗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돌로 메우고 이것을 밀로라고 불렀다(삼하5:9). 밀로의 뜻: 메우다

왜 샘이 있어야 하는가?

레위 제사장 체계의 희생 제도에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였다(레14:5, 51; 15:13).

제사장 목욕 등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소 22,000마리, 양 120,000마리(왕상8:63)

이것들의 피를 제거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 필요, 오직 기혼 샘만 가능하다.

(*) 성경은 분명히 시온에 샘들이 있다고 말한다(시87:5-7).

(*) 히스기야의 터널: 아시리아의 침공

대하32:30, 기혼의 윗물을 막아 다윗의 도시의 서쪽으로 흘러내려가게 함(대하32:30)

그의 아들 므낫세, 회개한 뒤 성전을 강화함(대하33:14-17)

다윗의 도시, 기혼 샘, 오벨 여기가 성전 터

(*) 욥3:17-18, (*)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도, 슥14:8, 생수가 흘러나감

오벨은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요담은 {주의} 집의 높은 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의 벽에 많은 것을 건축하며 또 유다의 산들에 도시들을 건축하고 숲 속에 성채들과 망대들을 건축하니라(대하27:3-4).

느헤미야기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 이들은 성막에서 나무 패는 사람, 물 길는 사람, 제단이 있던 오벨에 거하였다(느3:26; 11:21).

시48은 다윗의 도시 북쪽에 있던 오벨이 성전 터임을 보여 준다(시48:1-3).

세상 역사가들의 증언: 성전 안에 샘이 있었다.

1. 아리스테아스, 주전 3세기, 예루살렘 여행, 성전의 정면은 동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수많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고 이를 위해 넘쳐나는 물이 있었다. 그 물은 성전 안의 샘에서 흘러나왔다.

3. 타키투스(56-120): 로마의 상원 의원, 역사가, 성전에는 샘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성전 터 위치를 놓치게 되었을까?

성전 파괴 후 요세푸스의 증언(AD 37-100, 로마의 고용인, 예루살렘 파괴를 직접 눈으로 봄) 카이사르는 도시 전체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성전의 기초까지 파낸 사람들에게 의해 성전은 완전히 땅으로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과연 여기에 누군가가 살았을 것으로 믿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물의 벽 안에 은금을 숨겨 놓았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른 뒤 모든 건물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로마의 군단은 어디에 있었을까?

BC63년경 로마의 폼페이 예루살렘 점령, 그 이후 300년 동안 통치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로마 사람들의 주둔지가 없다.

예루살렘 파괴 이후 단 하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건물

로마 군인들의 안토니아 요새(헤롯 건축), 로마의 제10 군단 위치

타이투스(56-120)는 예루살렘 파괴 후 요새를 강화함. 6,000-10,000명 수용, 유적이 없다????

엘리에저 벤 자이르(Eleazer Ben jair), 마사다 유대인 자살(AD 73년), 이들은 성전 파괴를 봄, 증언, 마사다 사령관이 쓴 글: 예루살렘은 기초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거기에 남은 것은 단 하나 로마 군인들의 진영이었다.

로마의 요새는 규격화 되었다. 군대, 장군들, 시장, 곡물 창고, 마구간, 공중목욕탕

왜 유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가?

그 이유: 지금의 성전 산(Temple mount)이 성전이 있던 곳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진영

(*) 바위 사원을 보자. 약 45,000평

직사각형의 성벽을 보는가? 로마의 요새들과 비슷하다. (*) 마사다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성전과 요새가 서로 다른 데 있었다는 역사의 증언

1. 요세푸스의 증언: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에서 적어도 180미터 떨어짐, 즉 두 개는 서로 다르다.

2. 333년 경 보르도라는 사람의 순례기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거룩한 무덤 교회'(성모 교회)를 건축 중

로마 군대 사령부인 프라토리움의 위치: 성전 유적 터 북쪽에 위치 함, 그 밑으로 성전 폐허 터

3. 요18:28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데려감을 볼 수 있다. 서로 가깝다.

성전과 재판정 사이에는 중립 지대가 있었다.

4. 6세기 피아센자의 예루살렘 방문,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함, "그는 프라토리움 즉 사령관 관저는 성전 유적 터 북쪽에 있다."

(*) (*) 그림

상식적인 사실

(*) (*) 안토니아 요새, 성전 북쪽 귀퉁이, 약 4000평

여기에 6,000-10,000명이 진을 치고 30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을까? 불가능

(*) 지금의 성전 터(바위 사원 자리), 45,000평, 가능

침략자 로마가 성전 옆에 부속 건물을 짓고 거기에 군대를 두었을까?

(*) 성전과 로마군 진영이 떨어졌음을 보여 주는 증거(행21: 31,32, 35)

(*) (*) 경사진 구조

(*) (*) 성경과 역사의 증언: 성전은 다윗의 도시 안에. 기혼 샘이 있는 데 있어야 함 2개 그림

그러면 어떻게 성전 위치가 지금의 바위 사원 있는 데로 되었을까?

1. 638년경 2대 칼리프인 오마르(Omar) 바위 사원 옆에 조그만 기도처, 후에 알 아크사 모스크 그 동안 유대인들은 시간을 두고 성전을 지으려고 함

그래서 성전 터에서 두 개의 돌을 가져옴, 그런데 무슬림들이 사원을 지으면서 이 두 돌들 중 하나를 키블라 돌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메카를 바라봄

무슬림들의 미신: 같은 돌을 쓰면 한 성소의 파워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파워가 사원으로 옮겨 갔다.

즉 알아크사 사원이 솔로몬의 성전 터이다.

2. 12세기에 예루살렘을 빼앗은 십자군들도 동일한 생각, 바위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이 성전 터 12세기 순례자의 책, 틀레다의 벤자민, 유대인들에게 바위 돔 위치가 바로 성전 터이다.

그 뒤로 성전 터는 바위 돔, 알아크사 사원

3. 그러면 통곡의 벽은 무엇인가?

1570년경 랍비 아이작 루리아(Rabbi Isaac Luria)의 허위 주장,

실제로는 안토니아 요새의 벽

(*) 예수님의 예언, 미가서 3장 8, 10, 12

(*) 1930년대 사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서 어디서 통치하시는가?

(*) 오시는 곳은 올리브 산, 통치는 시온 산(미가서 4장 2-13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이유: 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 때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트럼프, 쿠슈너,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수도, 대사관 어디에, 1. 바위 사원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바위 사원을 치우실 것이다.

방법을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성경과 역사는 지금의 바위 돔이 성전 터가 아님을 보여 준다.

현재 다윗의 도시에서 많은 발굴 진행, 가능성이 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의 심한 반대

(*) 결국 에스겔서 38-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 이란, 시리아, 터키 등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인가?

꾸란에는 예루살렘 0번, 성경에는 811번(667번, 144번)

꾸란에는 심지어 팔레스타인도 나오지 않는다.

꾸란에는 성지가 알라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기록되어 있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되어 있다.

(*) (*)꾸란 5:20-21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중요한가? 바위 사원은 중요한가? 알 아크사 모스크는? 거룩한 곳인가?

〈Why Palestinians want this video removed?〉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제거하려 하는가?

브래드 TV, 〈지금 성전 산에서는 무슨 일이?〉 메시야닉 쥬, 문제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다시 한 번 바위 사원, 알 아크사 모스크, (*) 비디오

성경대로 보면 앞으로 미국은 세력을 잃고 이스라엘은 사면초가가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영혼이 망가지면 일어나기 어렵다.

전세상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시대로 나아감, 적그리스도의 출현

노아의 때, 롯의 때,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어렵다.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야 정상이다.

(*)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 휴가 받는다.

(*)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가족들 살피고, 교회 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선교하고 애국하면서 열심히 산다. 주님의 때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